

'현우경' 이야기 (48)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①

장님은 금강저를 주며 유언을 남겼다

잠부드비파에 보개라는 국왕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하늘과 해 달 산 바다 나무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여전히 아들은 생기지 않았다.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 아들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라에 왕위를 이을 이가 없으면 천하는 반드시 어지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힘으로 다투어 싸우면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을 것이니 그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매일 밤마다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 천인이 나타나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 성밖 숲 속에 선인이 있다. 선인은 몸이 황금빛이요, 복과 덕이 완만하여 아무도 따르지 못한다. 네가 진실로 아들이 필요하면 거기를 가서 간청해 보아라"

왕은 선인을 찾아갔다. 그는 선인에게 자신의 간절한 뜻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들

로 태어나 줄 것을 간곡히 청하자, 선인은 그 정성에 감동해 이를 허락했다. 이후 왕비에게는 신기하게도 태기가 있었다. 그리고 10달 후 태자가 태어났다. 몸은 자금색이요, 머리털은 검푸른 잘 생긴 아들이었다. 관상가를 불러 관상을 보게 했다.

"총명과 복덕이 아무도 따르지 못할 관상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관상가는 아들의 이름을 선사(善事)라고 지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둘째 부인에게도 태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둘째 부인은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으나 아이를 가진 동안 성격이 예민해지는 것은 물론 시녀들을 괴롭히며 왕비를 질투하고 시기했다. 그리고 열 달 후 그도 아들을 낳았다. 왕은 관상가를 불러 관상을 보게 했다. "이 아기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만 알뿐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만한 인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악사(惡事)라고 지어 주었다.

선사 태자 악사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다. 선사 태자는 역시 마음이 넓



삽화 · 강병호

고 백성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어느날 선사 태자는 궁궐 밖을 나갔다가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왕에게 부탁해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태자는 바다 속 보물을 찾아 백성들에게 나눠 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뜻을 왕에게 전하니 왕은 간곡히 반대를 했다.

"너의 뜻은 참으로 대단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어찌하여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네

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선사 태자의 뜻은 굽힐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물을 구해 올 것을 허락했다. 동생 악사는 형 혼자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질투가 났다. 위험한 일이라는 했지만 자신도 함께 가서 공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하는 일에 형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형제가 같이 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형과 함께 잘 다녀오거라"

태자는 삼천 냥의 돈을 내어 천 냥으로는 양식을 준비하고 천 냥으로는 배를 마련하고 나머지 천 냥으로는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그리고 예지력이 있는 늙은 장님에게 길안내를 부탁했다. 그렇게 신하들과 보물을 찾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모아 보물섬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리고 석달 열흘 배를 타고 드디어 보물섬에 닿았다. 모두들 열사 안고 좋아하며 만세를 불렀다. 그곳에는 온

갖 진귀한 보물들이 다 있었다. 모두들 배가 가라앉지 않을 만큼 보물을 실어 날랐다. 일행들은 배를 타고 다시 고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길 안내자였던 장님이 배 안에서 쓰러지고야 말았다. 죽음이 다가온 것이다. 그는 선사 태자에게 금강저 하나를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태자님! 은섬을 지나고 유리섬을 지나면 금섬이 나옵니다. 그곳에 당도하시어 이 금강저를 휘두르면 성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의주를 찾으십시오. 금은보배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평생 태자님을 지켜줄 여의주입니다. 꼭 찾아서 중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장님은 그렇게 눈을 감고야 말았다. 모두가 통곡을 하며 장님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지만 한 사람 악사만은 탄 곳을 보고 있었다. 마음 가득히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만화 '대장경 속 우화' 50. - 나는 받지 않았다 - 구성·김흥인. 어느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부었다. 이유인 즉 동료가 부처님께 출가하였다는 것. ...

만화 '대장경 속 우화' 51. 지금 당신은 내 앞에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